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매우 우수'

도, 이번 평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우수제품·기술 수출 등 성과 인정 받아

전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이 실시한 '21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사업평가(전국 14개 지자체 대상)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매년 말 연차평가 실시를 통해 1년 동안의 사업화 실적 및 네트워킹 운영, 기업지원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우수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유치'(22~24, 국비 231억 원), ▲해외수출계약 체결 '서우엠에스(전주)·인도 기업 간, 40억 원 규모' 등 주요 실적을 인정 받았다.

이외에도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주)천일식품 등 총 6개 기업 유치, 투자금액 1,189억 원), ▲우수제품·기술 수출(13건, 111.85억 원 달성), ▲수혜기업의 매출 및 고용 창출(매출 265억 원, 고용 150명) 등 성과를

올렸다.

이로써 전북도 특화산업인 스마트농생명융합산업 발전과 클러스터 육성 1단계 사업('18~'22, 5개년) 종료 후 후속으로 준비 중인 2단계 사업('23~'27, 5개년)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주력산업인 스마트농생명융합산업(농기계, 디지털농업시스템)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하고, 혁신도시를 포함한

직경 40km 이내 산업단지 2개 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도내 혁신기관 및 기업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를 주축으로 전북특례도시 참여기업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스마트농생명 산업 관련 기업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부처 설득 등 '동분서주'

조봉업 행정부지사, 국토부·환경부 찾아... 부처단계 국가예산 반영 총력 매진

전북도가 새정부 출범 6년 지방선거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부처단계 국가예산 최대 반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전북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23년 주요 국가예산 사업 대부분이 신규사업으로써 본격적인 부처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4월에 전방위 설명 회동을 통해 부처단계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해서다.

28일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국토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 실국장을 방문해 도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3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먼저, 국토부 철도국장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복합물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올해 상반기 설계가 완료되는 '전주역 전면개선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

다.

당선인 지역광역사업이기도 한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은 새만금신항~옥구신호소 구간(29.9km)은 신설하고, 옥구신호소~대야역 구간(18.1km)은 군장산터널을 활용하여 총 47.0km를 연결하는 철도건설사업이다.

이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환경부를 방문해 2030년 정부의 '생활폐기물 직매입 금지 정책' 시

행에 따라 지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적기 확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도내 15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광역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무주군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과 내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한편, 전북도는 부처 실무 및 실국장 대상으로 전방위 설명 회동을 펼친 데 이어, 5월에는 각 부처 기초실장 및 장·차관 대상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새정부 진용이 갖춰지는대로 지휘부가 총 출동해 부처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별별전북여행' 가동

전북도 한달 여행하기' 참여자 3개 유형·26팀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진)은 '2022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별별전북여행)' 참가자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7~14일까지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 일반여행자 19팀, 위케이션 4팀, 외국인 유학생 3팀 등 총 26팀 49명을 뽑았다.

'2022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는 참가자 스스로 도내 숨겨진 여행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사업으로 여행의 설계부터 체험, 그리고 홍보까지 진행되는 참여자 중심의 사업이다.

특히, 올해 재단은 여행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위케이션 유형을 추가해 일과 여행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여행지로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출신

유학생으로 구성된 외국인 유학생 팀은 전라북도의 역사, 문화, 생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경험하고, 그 체험기가 각자의 모국어로 SNS를 통해 전파돼 전라북도 여행지의 해외 홍보 효과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의 참가자 26개 팀은 최소 7박 이상 위케이션 유학생 유형 3박 이상) 체류해야 하며, 1박 기준 숙박비 5만원(최대 20박), 입장료 및 체험비 총액 5만원, 여행정보보험비 총액 2만5천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1박당 1회 이상 본인 SNS에 여행 후기와 체험 사진을 게재하는 등 별도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관광진흥팀(063-280-747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7개 유관기관

교통사고 줄이기 업무협약

전북도가 28일 교통안전 관련 7개 유관기관·단체와 '교통사고 줄이기 협력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유관기관·단체는 전북도, 전북도경찰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및 운전면허시험장 녹색아카데미 전북지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사고 통계 및 정보 공유, ▲교통사고 취약지역 및 대형 교통사고 합동조사, 교통시설 개선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 안전 홍보·계도 및 교육, ▲불법 자동차·이륜차·통학차량 합동점검 및 단속, ▲교통안전용품 보급 및 맞춤형 활용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교통안전 업무 정보공유와 업무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사고사고 줄이기'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통안전 협업체를 지속적 발굴·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8일 센터 세미나실에서 제주와 전북지역 새일센터 6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광역새일센터-제주새일센터 협약식

새일센터 균형발전 위한 공동협력방안 모색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는 28일 센터 세미나실에서 제주와 전북지역 새일센터 6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광역지역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광역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것으로, 광역센터가 없는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것에 대해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전북 지역센터 간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정보교류와 운영 사업에 대한 홍보 협력 등 여성인력의 고용유지지원, 지역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간담회는 제주도 및 전북지역 내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운영 담당자들이 모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희정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력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의 고용유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정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여성고용유지지원, 경력개발지원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일센터 협약 기관들과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063-254-3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기자·장은성기자

부안 해양수산분야 현장행정

내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부안군 해양수산 분야 주요 사업 현황을 방문해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현안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어촌·어항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 대한 격포광역 거점개발사업과 품소항 어촌뉴딜 300 사업 현황을 방문해 중추가 완료된 격포어촌계 사무실, 마을안길 환경 정비사업 현장의 안전 점검과 품소항 방파제·물안장 시설 정비 등이 담긴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점검을 통해 어촌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 어촌관광 활성화 연계 방안 및 어업인 소득증대 분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대상지와 젓갈발효식품센터, 친환경 양식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전북도 최초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받은 품소천 일일업의 생산자인 품소염전을 찾아 어업유산에 대한 가치를 확인했다.

또한, 품소젓갈발효식품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현황과 HACCP 기준에 맞는 젓갈 생산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마지막으로 순환여과양식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식장(현수산 박주상 대표)을 찾아 시육시설 및 여과시스템 방식 등 양식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운영상에 로사현도 청취했다. /유호상 기자

응급의료시행계획 심의·정책 방안 논의

도, 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의료기관·소방·지자체 등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전북도가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2022년 지역 응급의료시행계획 심의와 정책·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지역응급의료에 관련한 시책 등을 심의·조정·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북도 응급의료시행계획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 등 일반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도는 현장단계에서 실습 위주

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재난대응훈련, 이송 단계에서 닥터헬기와 권역의상센터를 연계한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 소방과 함께하는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도입 병원 단계에서의 응급의료기관 자원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 사업의 확대 등 도내 응급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응급의료현황,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과 세부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도 응급의료의 목표는 응급환자 발생 시점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기까지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며 "도내 응급의료정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

노인인력개발원과 협약

전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28일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지역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시범운영을 통해 역량 있는 만 60세 이상의 전북도민 100명을 선발해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의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구독·광고 문의 063-288-9700

도, 연구개발특구 종합평가 '1등' 성과

전북연구개발특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초로 실시한 연구개발특구 성과 종합평가서 1등을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통보된 연구개발특구 성과 종합평가 결과 전북은 90.6점으로 5개 연구개발특구 중 최고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8년 특구평가 체계 개편 후 처음으로 실시된 종합평가로 가장 늦게 시작한 전북특구가 선발주자 광역단위 특구를 제치고 최고 성과 평가를 큰 의미가 있다. 과기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에서 특구별 3년간(2019~2021)의 실적은 1차 서면평가하고, 2차 지자체의 발표요지를 거쳐 최종 종합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전북은 10개 평가지표 중 특구 사업성과 등 6개 정량지표에서 S등급을 받았으며, 정성지표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연계 정책추진 등 지자체 노력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 결과로 국비 20억 원 이상이 인센티브로 지원될 예정으로 특구사업 지원 등을 위해 '23년 특구육성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 '농촌 신활력플러스' 릴레이 세미나

6월까지 4회 릴레이 세미나 개최

전북 지역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2개 시·군 추진단은 유기적 협업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농촌신활력플러스협의회'를 구성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 확산과 미래지향적 방향성 정립을 위해 29일부터 오는 6월까지 네차례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신활력플러스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액션그룹 양성, 창의적 사업발굴, 혁신적 추진체계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29일 첫회를 시작으로 격

주로 실시되며, 1회차는 '액션그룹,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2회차는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 사업발굴', 3회차는 '혁신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성 확보 방안', 그리고 마지막 4회차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김재 일원에서 추진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역량강화 워크숍 주제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지역적 이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별 역량과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혁신적 조직성장 방향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종합 4회차는 유튜브 동시 방영을 통해 전국적인 참여와 성과를 확산한다. /유호상 기자

제42회 장애인 날 기념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전국의 장애인 여러분!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가 아래와 같이 실시되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참가자 대상: 만16세 이상 장애인 누구나
- 참가예의: 전국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 가수활동자 계의
- 참가접수: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증명서)(곡명, 성명, 전화, 주소 기입, 개인,그룹 환영)
- 접수방법: 방문, 전화(063)286-6678, 팩스(063)287-6676
 - * 방문주소: 전주시 덕진구 건삼로 1, 5층
- 예선: 2022.06.05.(일) 오전 10시(동남문화광장)
- 본선: 2022.06.05.(일) 오후 2시(동남문화광장)
 - 개최식, 공연, 경연, 행운권 추첨 등
- 일시: 2022.06.05.(일) 오전 10시
- 장소: 전주 동남문화광장(동남문 옆)
-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 주관: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 전주매일신문사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
☎ 063-286-6678 ☎ 063-287-6676